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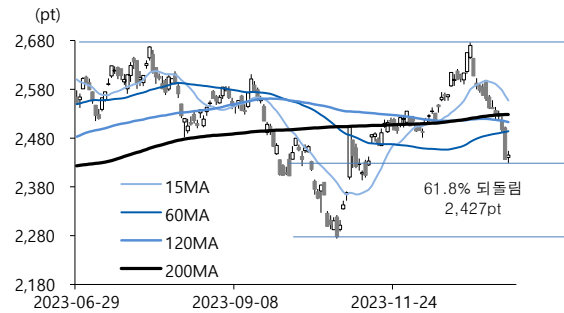


KOSPI, 바닥 확인 필요한 상황

1. KOSPI, 단기 과매도 국면이지만 바닥 확인 필요

- KOSPI,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V 패턴 형성하면서 등락. 연초 이후 조정은 기술적으로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문제는 200일 이평선 이탈한 점.
- 30일 이평선 이격도 95% 근접. 상승 폭의 61.8% 되돌림선 근접해 반등 가능한 상황.
- 반등에 성공해도 200일 이평선 빠르게 회복하고 안착해야 상승 국면으로 진행 가능.

KOSPI, 30일 이격도 95% 도달, 최근 상승 폭의 61.8% 되돌림선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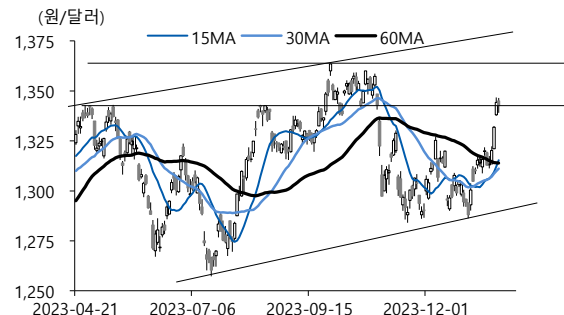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원달러 환율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

- 원달러 환율, 장기적으로는 120주 이평선 상승하는 가운데 지지대로 작용해 상승 추세 진행 중인 상황. 60주 이평선 하락 전환으로 고점대 형성 가능성은 존재.
- 단기 반등 과정에서 작년 10월을 제외하면 고점대 근접. 채널 상단선까지 상승한다면 아직 상승 폭 존재.
- 고점대 형성 여부 확인 필요하지만 형성 가능한 상황. 고점대 형성될 경우 주식시장도 반등 가능할 전망

원달러 환율, 채널 상단선까지 폭이 존재하지만 10월 제외 시 작년 고점대 도달해 상승 제한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 단기 과매도 국면이지만 바닥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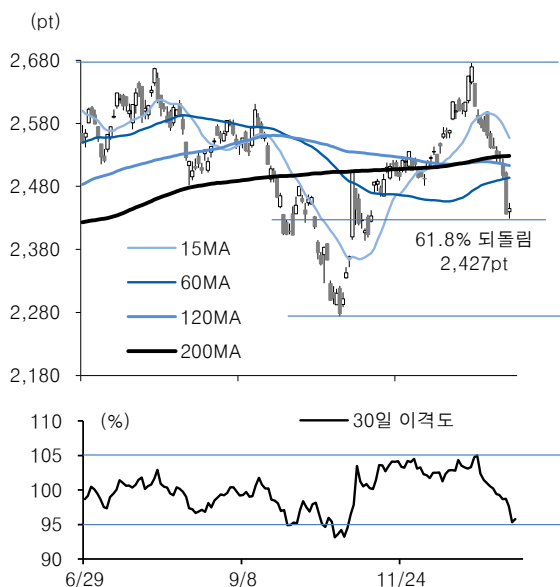
기술적인 관점에서 KOSPI는 작년 8월 초에서 올해 연초까지 V자 하락과 반등이 나타났고, 올해 연초에 V자 반등의 목표치에 도달한 후 상승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V자 반등의 목표치에서 조정 없는 상승은 쉽지 않다.

문제는 이 조정이 적어도 200일 이평선 위에서 마무리 되면 단기 등락 후 쉽게 전고점을 넘고 상승 추세로 이어졌겠지만 이탈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단기적으로는 30일 이평선 이격도가 95% 수준까지 하락해 단기 이격 과다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작년 10월 말 이후 1월 초까지 상승 폭의 61.8% 되돌림선이 2,427pt에 위치해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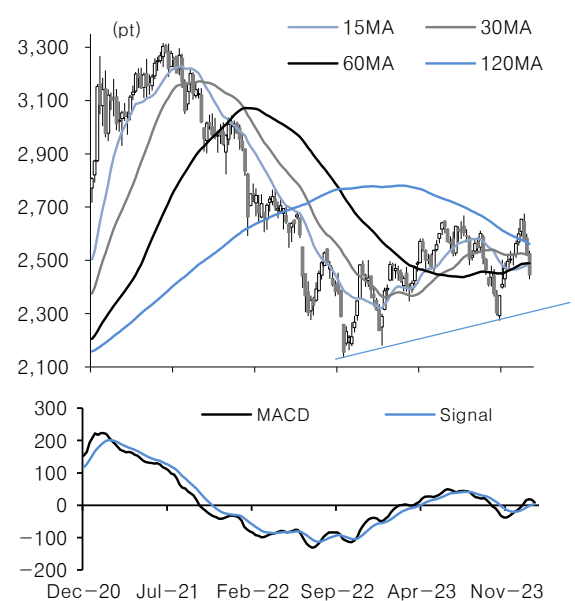
반등에 성공할 경우 200일 이평선 위치한 2,528pt의 회복과 안정이 중요하고, 동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면 다시 낙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단기 하락세가 강하면 이격 과다 국면에서도 하락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등의 회복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차트1] KOSPI일봉과 30일 이평선 이격도, 30일 이격도 95% 도달, 최근 상승 폭의 61.8% 되돌림선 근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주봉과 MACD, 60주 이평선 지지에 실패한 가운데 MACD 매도 신호 발생 임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원달러 환율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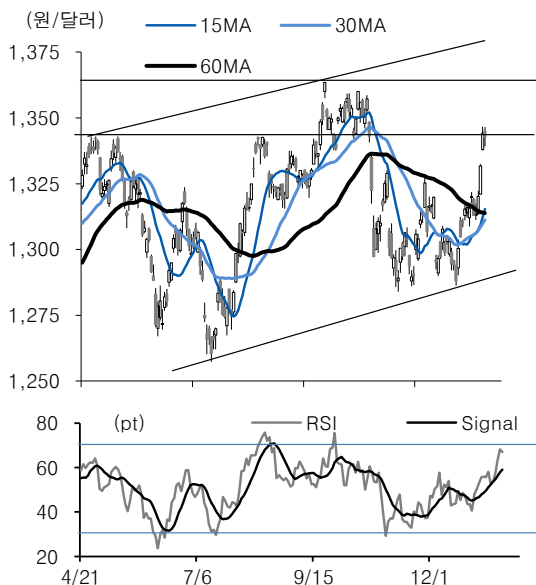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아직은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차트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 시마다 120주 이평선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동 이평선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 따라서 환율의 본격 조정은 120주 이평선 이탈을 확인해야 가능하다.

다만 장기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고, 60주 이평선이 약하지만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조정 국면으로 진행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차트3]에서 볼 수 있듯이 60일 이평선은 일봉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월 중에는 60일 이평선을 못넘었지만 1월에 동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KOSPI는 약세로 진행되었다. 주봉상의 상승 채널 상단선까지 환율이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 폭이 존재하지만 10월을 제외하면 작년 고점대에 도달한 상황이라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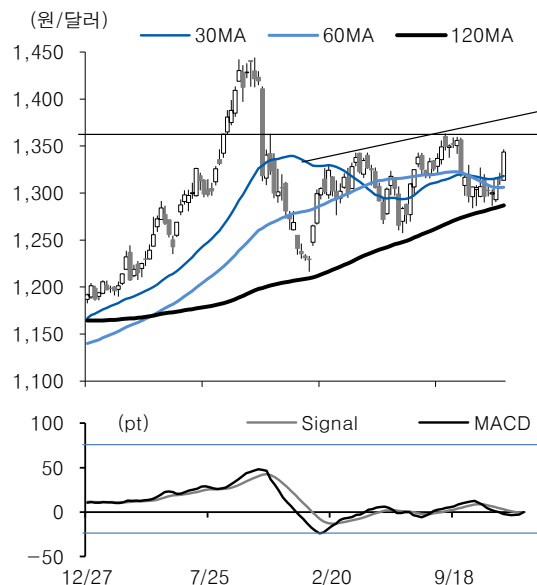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나왔다고 볼 수 없지만 점차로 고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나온다면 주식시장도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차트3] 환율 일봉과 RSI, 채널 상단선까지 폭이 존재하지만 10월 제외 시 작년 고점대 도달해 상승 제한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환율 주봉, 120주 이평선 이탈해야 본격 조정이지만 60주 이평선 하락 전환 등 탄력 둔화 나타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다소 부담스런 대외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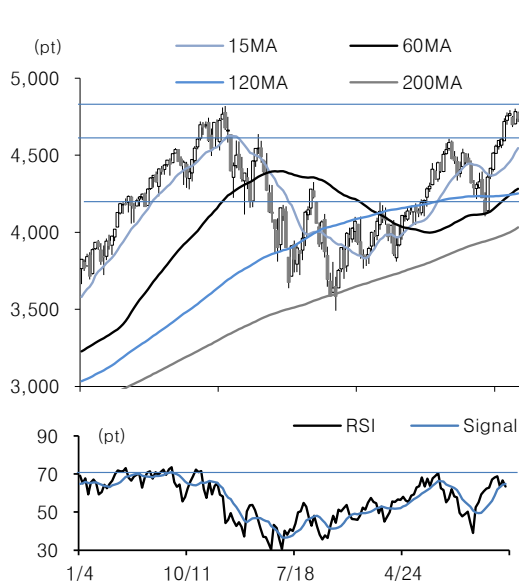
가장 부담스런 부분은 S&P500지수이다. 2022년 초 고점대에 근접한 가운데 이미 연초부터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본격 조정으로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고가를 경신해 전고점의 부담을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S&P500 지수가 양호한 수준의 조정을 받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4,600pt 수준의 작년 7월 고점까지는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KOSPI가 선제적으로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하락해도 오히려 충격이 제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른 부담 요인은 미국 금리에 관한 것이다. [차트6]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작년 5, 6월 고점대가 지지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30일 이평선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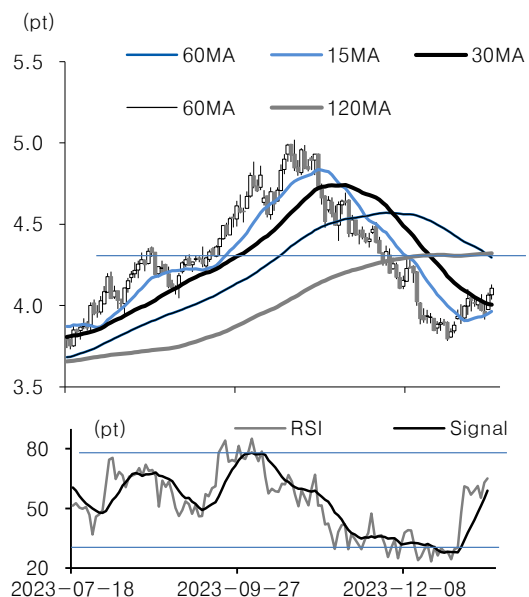
60, 120일 이평선이 중첩된 저항이 4.3%에 존재하고 현재 4.08%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폭이 약 0.22%p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트5] S&P500 주봉과 RSI, 2022년 고점대에서 조정 중이지만 아직 바닥 확인으로 보기 어려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10년 국채 일봉과 RSI, 30일 이평선 저항 돌파해 60일 이평선까지 추가 상승 가능한 상황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